

“부활, 허상의 파괴와 새로운 창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가오는 ‘새로움’ 때문에 아늑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완고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은 새로움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좋은 점과 새로움의 좋은 점을 하나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에 머물도록 하는 유혹은 기도 안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은 우리가 편하게 쉴 허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체하게 하여 하느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약함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하느님의 뜻과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신이 안주하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하느님의 모습, 즉 자신이 바라는 하느님의 모습을 잃고 혹시라도 다른 하느님을 만날 것 같은 두려움, 또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 같은 걱정,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믿음을 잃고 진정한 하느님을 잊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새로움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귀와 마음을 닫고 맙니다.

이 때문에 토마 사도는 다른 제자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복음을 거부하며 징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인정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님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인정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 왔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동안 친분을 나누었던 허상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토마 사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외칩니다. 진정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부질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진정한 믿음과 하느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에게서 어떤 특정한 모습만을 찾기보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때, 진정한 부활과 그 기쁨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글/ 이건희(안드레아) 신부

싱그러운 말 한 마디.....차동엽 신부님

그대여,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박제된, 입이 큰
농어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대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농어가 한 말치고는 명언(名言)이지요? 입 때문
에 생겨나는 고통을 자처하지 말라는 교훈입니
다.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
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요.

말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김창완씨가 담배를 끊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담배
를 끊으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
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 그랬더니 참을 만하더라구
요.”

김창완씨가 증언하는 말의 효과는 최근 신경의
학계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말이 우리 신체
모든 조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경의
학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속의 언어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
요. 무슨 말이나 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신체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유 더워’ 하고 자꾸 말하면 더
덥게 느껴지고, ‘어 시원해’ 하고 자꾸 말하
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해서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의 힘을 치료에 적용하는 언어치
료법(Word Therapy)이 생겨났답니다. 이는 환자
로 하여금 하루 2~3차례 일정시간(10~15분)
시행하는 것인데, 만약 당뇨병 환자라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10
분 정도 말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놀랍대요.

말 한 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입증하는 일화가 있어요.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제단의 포도주를 바닥에 쏟고 말았지요. 화가
난 신부는 소년에게 “바보같으니, 다시는 이곳
에 오지 말아라!”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 중 비슷
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곳의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다. 일부
러 그런 것이 아니잖니?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세월이 흘러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 강력한
전제정치를 실행했던 ‘조셉 브로즈 티토’
였고, 격려를 받은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 ‘폴턴 J. 쉰’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 한 마디 차이가
정반대의 운명을 이끌어냈으니 말이에요.

그대여, 우리가 평소 무심코 내 뱉은 한마디의
말은 이처럼 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해인
수녀님의 시 ‘나를 키우는 말’에 그대도 공감
할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 고마운 마음 새
로이 솟아올라 /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 나도 잠시 아
름다운 사람이 되어 /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 나는 말하면
서 다시 알지>

오늘은 그대에게도 남에게도 청량제가 되어줄
싱그러운 말 한마디 해 보세요.

그대여, 안녕.

청소년을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저희로 하여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주님,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009년 4월 4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66.00

교 무 금 : \$ 965.00 103(50), 105(20),
109(20), 112(100), 116(60), 120(10),
122(100), 124(40), 130(20), 133(50),
137(300), 140(40), 150(5), 153(100), 166(50)

감사헌금 : \$ 680.00 103(50), 105(20),
107(20), 108(100), 109(20), 112(50),
113(40), 119(20), 122(20), 123(20),
124(20), 130(10), 133(5), 137(40), 143(20),
144(10), 150(5), 152(50), 154(10), 162(20),
166(50), 169(10), 172(10), 173(20),
174(20), 175(2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10 (\$5795.00)

합 계 : \$ 2511.00

본 당 소 식

◎ **오늘 미사**는 광주교구 김용운 시몬 신부님께서 집전을 해주십니다. 멀리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께 기도로써 감사 드립니다.

◎ 십자가의 길을 임시 중단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부활을 기리는 의미에서 주님의 수난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은, 5월 30일 삼위일체 대축일 까지 중단하며 ‘본당 발전을 위한 기도’로 대신합니다.

이에,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의 길은 6월 6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 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 구역 모임 안내

- ▶ 키치너 24일 7시 교육관
- ▶ 브랜포드 17일 7시 안 세영 형제덕
- ▶ 캠브리지 17일 7시30분 김 흥식 형제덕
- ▶ 워털루 1구역 17일 6시 황 규영 형제덕
- 2구역 24일 6시 이 동기 형제덕
- 3구역 17일 7시 김 손권 형제덕
- 4구역 24일 6시 이 상재 형제덕

(구역 모임시 교적 재정리를 마무리하여 5월 첫 미사때 선교부로 제출 바랍니다)

◎ 신앙특강 안내

- ▶ **초청강사: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한국거주)**
- ▶ 일시: 5월 2일(부활 제 5 주일) 오후 3시
- ▶ 장소: 본당
- ▶ 비고: 주일 미사 후 친교식사가 있습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 ▶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 5월 : 키치너
- 6월 : 브랜포드
- 7월 : 캠브리지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 ▶ 일 시 : 4월 16일(금) 오후 7시
- ▶ 장 소 : 교육관
- ▶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재정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헌금 전산화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 내역이 필요한 교우는 재정분과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옥현 형제 : tri-best@rogers.com)

◎ **4월 미사곡이 본당 홈페이지에 올려있습니다.** 미리듣기와 연습등이 가능합니다
(www.kwpaul.com)

◎ 안내/헌금 담당

- ▶ 5월 : 워털루 4 구역
- ▶ 6월 : 캠브리지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제 4회 ST. ANTHONY DANIEL PARISH LIFE CENTRE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 시 : 2010년 6월 1일 화요일
- 장 소 : Grand Valley Golf and Country Club
- 비 용 : \$130/인
- 문 의 : 이 상희 사무봉사자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15호

2010. 4. 11.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해설 이 정숙 차주 해설 김 손권

성 가

입 당 (25) 사랑의 하느님
봉 헌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성 체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백성
되 장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화 답 송 ◎ 주님은 줄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영성체 후 묵상

토마스 사도의 변신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자기를 위해
한번 더 발현하심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애정만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술한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서는 사랑으로 감동
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심 많은
토마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겠습니다.

독 서	
4월 11일	박재영 박경미
4월 18일	한택중 한재희

봉 헌	
4월 11일	조성근 조현숙
4월 18일	박재영 박경미

복 사	
4월 11일	류지현 이수민
4월 18일	안아림 김근영